

# 세계의 養鷄產業動向

世界家禽學會 韓國支部

## 산란저하증후군(Egg drop syndrom)

산란이 왕성한 계군의 산란율이 원인을 알 수없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 닭들의 임상학적인 진단에서도 명확히 규명되기 어려운 산란하락 증세가 유럽 전지역을 통하여 1976년부터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New York 대학의 수의학 교수인 Calnek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 불명의 산란 저하 증세는 뉴캐슬, 뇌척수염, 설상 Virus 등의 불합적인 영향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하였지만 이런 징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수가 없었고 서부유럽,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산란 하락 징후 76(EDS-76)이라는 명칭을 붙여 하나의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징후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뚜렷히 나타나는 결과는 대체로 최고 산란율에 도달하는 25-26 주령, 또는 29-31 주령의 산란 중인 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감염된 닭은 어떤 마비증세나 특이 한 증상도 없이 기대되는 최고 산란율

에 도달하지도 않고 갑자기 30-50%정도 산란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계란의 모양에서 짐작될 수가 있는 증상은 난각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연란 또는 난각이 없는 계란을 1-3 주 동안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간에 생산하게 된다. 난각의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산란율은 6-8 주 후에 까지도 정상적인 표준 산란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산란 하락 징후의 결과이지만 네델란드에서는 이 징후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계란 내의 난백이 묽고 회색 빛을 띤다고 하였다.

결국 산란 하락 징후(EDS76)의 치료나 예방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는데 Calnek 박사는 만약에 종란이나 종계의 운반과정에서 오염되는 즉 환경적인 오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EDS-76의 해결방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수직적인 감염원 즉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염되는 Virus를 차단 시키기 위해서 EDS-76을 앓았던 종계로 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EDS-76의 발생지역의 병아리를 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에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와 아울러 EDS76의 Virus를 규명하여 사독 백신이나 치료방법을 연구하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연구는 실제 응용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야 할 것이므로 앞에서 지적한 수직적인 예방대책을 모든 양계가들이 명심하여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 미국

미국의 가금 및 계란 연구소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주최하는 제49회 양계사업 진상과 약 회의에서 여러가지 작금의 추세로 보아 브로일러 산업은 앞으로 닭고기 값의 계속적인 앙등으로 10-15%정도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앞으로 5년동안 브로일러 산업의 증가는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식품산업, 인플레이션, 닭고기의 처리공정의 발달, 정육(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생산량 등으로 인한 영향과 또 브로일러 산업의 내적인 사정에서는 산육능력의 개량, 사육기간의 단축, 더욱 양호한 사료 효율의 개선을 모든 사료가나 육종회사들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현실과 대차없는 실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종계회사에서는 사료효율이나 증체량을 개량시킨 브로일러 종계의 생산으로 산업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앞으로 5년 동안에는 미국 내의 사회적 제요소에 영향을 받아 더욱 종계개량에 박차를 가한다면 브로일러의 출하체중은 2kg, 사육기간은 적어도 5일 단축, 사료효율은 5~10% 개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브로일러 산업은 남아메리카와 다른 지역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와 같이 미국에서는 사양 산업으로 많은 회사들이 점차로 도산되었고 또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산업의 불황에서도 고가의 사료값, 생산물의 비싼 운반에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을 견디어 왔던 회사들은 지금부터 더 많은 돈을 벌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새로운 도계처리공정에 힘을 기울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산업으로 균형있게 발전해 가리라는 예상이 매우 합리적인 근거라고 믿어진다.

모든 지역에서 균형있게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도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요망되어 왔던 브로일러 자동사육 시설 마련이 5년 내에 사육가들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미국 내의 소비자들 취향이 브로일러 산업의 발전에 영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국 브로일러 위원회의 추정치에서 현재는 전체 브로일러 생산량 중 30%가 냉동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향후 5년이면 약 35% 이상이 냉동상태가 판매될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또 미국 내에서 시판되는 브로일러 고기의 35% 이상은 매스콤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전되어온 상표로 부착되어 있고 앞으로 5년 내에는 더 많은 상표들의 닭고기 제품이 나오리라 생각할 수도 있어 닭고기 소비량 증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 농무성의 추정에서 보면 1977년에 즉석에서 바로 용이하게 요리 될 수 있는 식품이 판매된 량이 15,700,000\$로 1976년의 13,207,000\$보다 18.7%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추정으로 보아 미국 주부들의 반 이상이 쉽게 빨리 음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크게 요구하고 있어 브로일러 고기는 가정에서 용이하게 음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브로일러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